

알레르기 질환이 아직 증가하고 있는가?²⁾

1. 연구배경

-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던 알레르기 질환은 최근 서양 국가에서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임
- 아시아 지역에서는 알레르기 질환 발생 현황 등 역학 정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아토피 피부염, 알레르기 비염, 천식 질환의 유병률과 의료비 변화를 분석함

2. 연구방법

- '09~'14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을 산출함
- 유병률은 질환별 환자 수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수로 나누어 산출함. 알레르기 질환 유병 환자는 아토피 피부염(L20), 알레르기 비염(J301-K304), 천식(J45-J46)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로 정의함

3. 연구결과

- 2014년 아토피 피부염, 알레르기성 비염 및 천식 유병률은 건강보험 가입 인구 1,000명당 각각 19.0명, 133.1명, 36.3명임
 - ▶ 세 질환의 유병률은 10세 이하에서 가장 높았는데, 인구 1,000명당 95.0명, 384.1명, 132.1명임
 - ▶ 아토피 피부염 및 알레르기성 비염은 연령이 많을수록 유병률이 감소한 반면에 천식은 30대 이상에서 유병률이 다시 증가하여 70대 연령대에서 제2의 최고점에 이름

2) Kim et al., Allergies are still on the rise? A 6-year nationwide population-based study in Korea. Allergology International 2016;65:186-191

- 건강보험 지급 기준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의료비용은 \$35.0백만, 알레르기성 비염 \$207.2백만, 천식 \$146.9백만임
-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,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은 2013년까지 증가(특히, 10대 이하 연령층)하는 추세임
- 전체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은 증가하지 않았지만, 10대 이하에서 유병률이 높아, 어린이 환자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적정 관리 등 미충족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

[그림 1]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

(per thousand people)

